

여성정책 국내동향

2022년 5월 2차



주요 현안



2021년 「기업 및 공공기관의 가족친화 수준조사」 결과 발표

☑ 여성가족부는 국가승인통계 「기업 및 공공기관의 가족친화수준 조사(2021년)」 결과 발표

- 2021년 가족친화지수는 46.9점으로 2018년보다 6.3점 상승하였고, 부문별 지수는 공공부문(55.7점)이 민간부문(41.1점) 보다 14.6점 높았음.
- 영역별 가족친화지수는 근로자지원제도를 제외한 영역에서 3년 전보다 상승하였고, 타 영역에 비해 가족친화문화조성(69.0점) 및 출산·양육·교육 지원제도(58.0점) 영역의 지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코로나19 상황에서 재택근무, 가족돌봄휴직 등이 활용됨에 따라 탄력근무제도(11.8점↑), 부양가족지원제도(18.3점↑) 영역 지수가 크게 상승
- 가족친화제도 시행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근로자 직장만족도 향상'(59.7%), '근로자 생산성 향상'(51.5%), '근무태도 향상'(50.9%), '기업 생산성 향상'(50.4%) 등의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음.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2.05.22.]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8562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여성가족부는 전국 한부모가족 가구주 3,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월평균소득은 약 245.3만원으로 전체 가구 소득(416.9만원) 대비 절반 수준이었고, 취업 중인 한부모는 77.7%이며, 상용근로자 비율은 49.2%로 낮은 수준
- 자녀 양육은 '양육비·교육비'가 가장 부담된다는 응답이 70% 이상(미취학 자녀 72.1%, 초등 자녀 71.9%, 중학생 이상 77.7%)이었고,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 비율은 72.1%
-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해 시급한 제도는 '양육비 긴급지원 확대'(44.4%), '미이행자 처벌 강화'(31.5%), '양육비이행관리원 역할 강화'(23.6%) 순으로 나타남.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2.05.22.]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sessionId=0SXneOVOufSd9qjRjogJfXE3.mogef20?mid=news405&bbtSn=708567

2022년 청년 양성평등 문화 추진단 참가자 모집

☑ 여성가족부는 2022년 청년 양성평등 문화 추진단 '버터나이프 크루'(Butter knife crew) 4기 모집

- 버터나이프 크루 4기는 특별 분야인 '젠더갈등 완화', '공정한 청년 일자리 환경 조성', '청년 고립', '우울감 극복을 위한 마음돌봄'과 일반 분야인 '양성평등 문화확산'을 주제로 총 15개의 프로젝트팀(100명) 내외로 구성
- 올해 만들어진 '젠더갈등 완화' 특별 분야는 양성평등 인식 격차 및 차별·혐오 해소를 위한 사실 확인(팩트체크) 프로젝트, 청소년(청년) 교육, 청년층의 양성평등 의제 발굴 및 소통 기회 마련 등 추진 예정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2.05.23.]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_Sn=708568

2022 「청소년 통계」 발표

☑ 여성가족부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2022 「청소년 통계」 작성

- 2021년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전년 대비 2.0%p 증가한 44.2%, 실업률은 1.2%p 감소한 7.8%로 나타났고, 초(4~6)·중·고등학생의 96.8%가 남자와 여자가 모든 면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2.05.25.]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_Sn=708572

여성관련 법안 동향

출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ooringBill.do>

구분	계류법안(발의자)	제안일	내용
가족·돌봄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재의원 등 11인)	2022-05-11	아동수당의 수급연령을 12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다자녀 가구에게는 기존 아동수당에 더해 둘째 자녀는 매월 5만원, 셋째 자녀 이상부터는 매월 10만원을 추가 지급함으로써,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안 제4조제1항 및 후단 신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 등 10인)	2022-05-12	지방자치단체가 보호대상아동에 대해 일시보호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아동에게 보호 과정과 목적, 예상 기간 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명하게 함으로써 분리과정에서 아동이 겪는 심리적 불안과 충격을 최소화하고 보다 안정된 상태에서 보호(안 제15조제6항)

가족·돌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20인)	2022-05-23	현재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의 현실과 필요성을 고려하여, 영유아의 조부모가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에 신고하여 '손자녀돌보미' 자격요건을 유지하는 경우에 한해 손자녀의 양육을 지원하는 조부모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용한 돌봄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고, 국비로 손자녀돌보미 비용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여 국가 위기 수준의 저출산 상황을 고려, 가족 내 자녀 양육의 비용 부담을 가정과 국가가 분담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육 지원 정책을 마련해 저출산 현상 해소에 기여하는 한편, 부수적으로 노년층의 노후 소득 문제 개선 기여(안 제34조의2제2항 및 안 제34조의4 신설 등)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2인)	2022-05-22	영유아보육법 벌칙규정에 영상정보 “훼손한 자”를 처벌대상으로 명시하여 대법원 판결에서 문제된 입법미비를 해소하고 영유아의 인권을 충실하게 보호(안 제54조제2항제4호)
젠더 폭력·안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주혜의원 등 10인)	2022-05-13	현행법에서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 영상물을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피해자가 19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안 제3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2022-05-19	동법 제5조의4제3항에 재발방지대책 제출, 현장점검뿐만 아니라 통보와 관련된 사항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기관 등의 책임 부과(안 제5조의4제3항)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2인)	2022-05-19	군 내 성희롱, 성추행 및 성폭력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국방부 또는 각 군 본부로 보고하도록 하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로부터의 분리, 법률·의료 지원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군 내 만연한 성범죄를 척결하고 군 기강 확립(안 제43조 및 제45조의2)



<http://kwdi.re.kr/plaza/press.do>

과제명	날짜	매체명	제목	기사링크
여성폭력 검찰통계 분석(II):디지털 성폭력 범죄, 성폭력 무고죄를 중심으로	5.14	조선일보	[팩트 체크] 법조계 "성폭력 무고혐의, 유죄 판결은 6.4%"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2/05/14/POVIZZRBIBDB5FBDHTJ4ERJSBQ/
또래문화를 통해 본 청소년의 성평등 의식과 태도 연구(Ⅰ): 남녀 청소년의 또래문화와 젠더의식 격차 비교	5.18	조선일보	여고생들 "꿈 포기한 엄마, 우리는 입시 지옥... 결혼도 출산도 싫다"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2/05/18/72KBWCUTEZBULEJUHZBW6L4XYA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5.23	BBS NEWS	한부모 가족 절반 이상 정부 지원...소득 줄었는데 양육비도 못 받아	http://news.bbsi.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8802

연구자 언론활동

날짜	매체명	제목	연구자명	기사링크
5.13	조선일보	역할분담 혼란... 2030男 "내가 외벌이해도 집안일 해야 좋은남편"	마경희 선임연구위원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2/05/13/SBS2IK2VN5H5XENSWA3VJX4GIM
5.16	조선일보	20년 지나도 바뀐 게 없는 경단녀의 눈물	김난주 연구위원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2/05/16/GBDRUJBFBNDADFOTRGUJOUQCQRQHY
5.18	조선일보	여고생들 "꿈 포기한 엄마, 우리는 입시 지옥... 결혼도 출산도 싫다"	최윤정 연구위원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2/05/18/72KBWCUTEZBULEJUHZBW6L4XYA
5.23	세계일보	양육비이행법 무색... 떼먹는 부모 되레 늘었다	박복순 선임연구위원	http://www.segye.com/newsView/20220523518782

유관기관 연구동향



가족 다양성의 현실과 정책 과제: 비친족 친밀한 관계의 가족 인정 필요성(국회입법조사처)

가족 변화 및 가족범위 확장에 대한 인식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제한적인 가족 개념의 한계 및 해외 사례를 검토하여 개선과제 도출

참고자료

- [국회입법조사처 <가족 다양성의 현실과 정책 과제: 비친족 친밀한 관계의 가족 인정 필요성 NARS 현안분석 251호>, 2022.05.19.]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155&brdSeq=39111>